



시페퍼스 '막내팀' 한계 탈피 쉽지 않네

기업은행에 0-3 패하며 10연패 '늪'... 최하위 머물러 선수들 실력은 수준급... 감독·선수 '믿음의 배구' 중요

창단 3년 차 페퍼스가 '막내팀'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페퍼스측은 19일 경기에서 IBK기업은행에 세트스코어 0-3(21-25 23-25 19-25)으로 패하며 10연패 늪에 빠졌다.

페퍼스 주포 야스민은 훈련 중 당한 부상으로 이날 결장했다. 야스민 대신 출전한 박은서는 팀 내 최다인 13득점을 올렸지만 기업은행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페퍼스는 2세트에선 기업은행을 23-23까지 따라잡으며 치열하게 싸웠지만 뒷심이 부족했다. 결국 페퍼스는 이날 IBK기업은행 아베크롬비와 표승주의 화력에 무너졌다.

1·2·3세트를 모두 챙기며 승점 3점을 더해 승점 26이 된 IBK기업은행은 한 경기를 덜 땀 흘린 것(승점 24)을 넘으며 4위로 올라섰다. IBK기업은행은 3위 GS칼텍스(승점 28)와의 격차도 승점 2로 좁혔다.

페퍼스는 2021년 창단해 올해 3년 차 팀이다.

하지만 선수들의 능력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며 여전히 '승점'으로 7개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선수 구성으로 보면 어떤 팀에 견주어도 나쁘지 않은 팀이지만, 페퍼스는 각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량보다 떨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리그 경험이 많

은 박정아와 오지영 등이 리더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아웃사이드 히터 박정아의 리시브 부진을 비롯해 이를 커버해줄 수 있는 팀의 수비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 야스민에게 득점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줄 세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페퍼스가 수비와 세터의 연결 그리고 공격수의 마침표까지, 합이 아쉬운 상황이라고 말한다.

페퍼스가 10연패를 끊어내기 위해 '화합과 신뢰'가 절실한 타이밍이다.

페퍼스의 유치주진단 멤버였던 김민철 조선대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믿는 배구'라고 전했다.

김 교수는 "선수들이 감독을 믿어야 되고 감독이 선수를 믿어야 한다. 서로가 믿음의 배구를 해야 한다. 선수와 감독, 감독과 선수가 서로 믿으면서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회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페퍼스는 오는 22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움에서 한국도로공사를 만나 경기를 펼친다. 10연패 충격과 밀고 끈끈한 팀워크로 페퍼스가 승리의 팀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박정아

'황금기' 배드민턴 '따뜻한 연말'

한국배드민턴협회 포상식 개최... 1억2천만원 포상금

한국 배드민턴이 화려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 파리 올림픽을 향한 결의를 다졌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0일 충남 서산 베니키 아호텔에서 포상식을 열고 대표팀 선수단·코치진에 기념패 및 포상금 1억2000여만원을 전달했다. 후원사 포상금 1천만원도 추가로 전달됐다.

김학균 대표팀 감독은 "저를 대표팀 수장으로 믿고 따라준 코치들과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면서 "올해 조금이라도 아쉬웠던 점을 잘 보완해 내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최고의 성적을 내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구체적으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성적을 파리 올림픽에서도 재현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대표팀은 항저우 대회에서 금메달 2개(여자단식·여자단체), 은메달 2개(남자복식·여자복식), 동메달 3개(여자복식·혼합복식)를 획득했다.

다만 올림픽은 아시안게임과 달리 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등 개인전 5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여자 대표팀 주장 김소영은 "멋진 팀원들을 만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면서 "내년 우버컵(세계여자단체선수권)이 열리는

데 항저우의 기운을 이어받아 열심히 준비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국 배드민턴은 올해 암흑기에서 벗어나 황금기를 활짝 열어젖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대회에서 10차례 우승한 안세영(삼성생명)을 필두로 여자복식, 남자복식, 혼합복식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내며 대표팀 세대교체를 완성했다.

8월 세계개인선수권대회에서는 여자단식·혼합복식·남자복식 금메달, 여자복식 동메달이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한국이 세계선수권 3개 종목을 제패한 것은 1977년 초대 대회 이래 처음으로 박주봉, 방수현 등 1990년대 황금세대도 이루지 못했던 위업이다.

그리고 한 달여 후 대표팀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화려하게 도약해 5년 전 노메달의 수모를 설욕했다.

한국은 2010년 광저우, 2014년 인천 대회에서는 각각 금메달 1개에 그쳤고 2018년 자카르타-팔렐방 대회에서는 1978년 방콕 대회 이후 40년 만의 노메달 불명예를 안았었다.

배드민턴 강국 지위를 회복한 대표팀은 이제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에서 정점을 찍을 날을 준비한다. /연협뉴스



안세영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내년 11월 열리는 프리미어12에 출전할 12개팀을 확정했다. 슈퍼라운드 일정과 대회 결승전이 진행될 도쿄돔 전경. (WBSC 제공)

2024년 야구 프리미어12 참가국 확정

'초대 챔피언' 한국 등 세계 랭킹 상위팀 출전... 내년 11월 10~24일

내년 11월에 열리는 프리미어12에 출전할 12개 나라가 확정됐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이 20일 "세계 랭킹 상위 12개 팀이 내년 국제 야구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인 프리미어12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며 참가팀을 발표했다.

전날 발표된 WBSC 2023년 세계랭킹에 따라 1위를 지킨 일본을 필두로 멕시코, 미국, 한국, 대만, 베네수엘라, 네덜란드, 쿠바,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호주, 푸에르토리코 등 상위 12개 팀이 3회

대회에서 우승을 다툰다. 파나마는 세계랭킹 10위에 이름을 올리면서 프리미어 12 데뷔전을 치른다.

세계랭킹 4위로 올 시즌을 마무리한 한국은 3회 연속 대회에 참가한다.

한국은 2015년 열린 1회 대회에서 미국을 8-0으로 꺾고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오타니 쇼헤이를 앞세운 일본과 준결승에서 만나 9회 4-3 역전극을 연출했었다.

한국은 2019년 열린 2회 대회에서는 일본에 3-5 역전패를 기록, 준우승에 만족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대회는 내년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다.

12개 참가국이 A·B 그룹으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르고 조 1·2위가 슈퍼라운드에서 진출한다. 조별리그 성적을 안고 슈퍼라운드에서 진행되며 1·2위가 결승에서 우승을 다투게 된다.

A조(미주 대륙·장소미정)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결을 벌인다. B조 개막전은 11월 13일 일본 나고야돔에서 열리며, 조별리그 일정은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대만에서 전개된다.

11월 21일 슈퍼라운드를 시작으로 24일 동메달 결승전, 결승전은 도쿄돔에서 치러진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2024시즌 코칭스태프 발표

타케시 배터리 코치 1군 복귀

나가무라 타케시 코치가 마무리캠프에 이어 2024시즌에도 KIA 포수들과 함께 한다.

KIA 타이거즈가 2024시즌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해 발표했다. 진갑용 수석 코치, 이범호·홍세완 타격 코치, 이현근 작전 코치, 조재영 주루 코

치, 박기남 수비 코치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김종국 감독과 1군에서 호흡을 맞춘다.

새로 합류한 정재훈·이동걸 코치가 1군 투수 코치를 맡고, 타케시 배터리 코치가 1군 배터리 코치로 팀에 복귀한다.

다케시 코치는 지난 2015시즌부터 2018시즌까지 KIA에서 포수들을 조련했었고, 지난 11월 일본

오카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에서는 인스트럭터로 참여했다.

김상훈 코치는 전력분석 코치로 이동해 팀 전력 강화를 위한 역할을 한다.

손승락 감독이 이끄는 퓨처스팀은 이정호·이상호 투수코치, 최희섭 타격 코치가 투-타를 맡는다. 또 박효일 주루 코치, 윤해진 수비 코치, 이해창 배터리 코치로 2군 코치진이 구성됐다.

잔류군은 서덕원 투수 코치와 김석연 타격 코치가 담당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